



나도 ‘캥거루족’인가요?

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가구 내 상대소득 유형별 이질성

조현지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), 진미정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, 생활과학연구소 교수)

문제의식 및 연구문제

-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곧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‘캥거루족’이라는 통념에 문제 제기
- 집단 내 이질성 포착하고 가구 내에서 주로 지원 ‘주체’로 살아가는 청년들에 초점을 맞춤
-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다른 청년들의 심리 건강을 부모 동거 및 상대소득의 관점에서 고찰

- ①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청년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?
- ②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청년 집단을 가구 내 상대소득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을 때, 집단별 개인 특성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한가?
- ③ 가구 내 상대소득 집단별 심리적 건강(생활만족도와 우울감)은 어떠한가?

분석자료 및 방법

- 한국복지패널의 2021년 16차 자료
- 2021년 기준 가구주인 부 또는 모와 동거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비혼 청년 882명
- 척도
 - 연간소득: 가구원별 정보가 존재하는 임금소득, 사업소득, 기타근로소득의 합계
 - 연간 가구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 및 부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/공적이전소득의 합계
 - 생활만족도: 단일 문항, 5점 척도 (8개 하위 영역 중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4개 영역만 제시)
 - 우울감: CESD-11, 11개 문항, 4점 척도 (코딩 변경 후 점수 합계액에 20/11 곱함)

- ① 무소득 집단: 본인의 연간소득 = 0
 - ② 가구 내 부분소득 집단: $0 < \text{본인의 연간소득} < \text{가구 내 최대소득}$
 - ③ 가구 내 최대소득 집단: 본인의 연간소득 = 가구 내 최대소득
- 교차분석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별 개인 특성, 가구 특성, 심리적 건강의 차이 분석

결론 및 논의

- ① 청년 세대 내에서도 이미 부모 부양 인구가 존재함
 - 가구원들의 경제적 의존 대상일 확률이 높은 가구 내 최대소득 집단 청년이 약 19%를 차지함
- ②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자녀의 가구 부양과 연결됨
 -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 집단의 가구 내 상대소득이 높음
 - 가구 내 최대소득 집단 청년들의 연간 가구 총소득이 가장 낮음
- ③ 본인이 가장 많은 경제적 자원을 보유한 가구원이라는 사실이 청년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
 - 유의한 결과가 나온 모든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가구 내 최대소득 집단 청년들이 최저 점수를 보임
- ④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, 높은 우울감을 보임
 - 무소득 집단 청년들의 현저히 높은 우울감, 개인/가구 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남

